

전남 섬지역 어르신 시 통합돌봄 도입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 선정 국비 1억2600만원 최다 확보 고령 건강관리·생활 동시 지원

전남도가 의료·복지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령층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2026년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섬 지역을 중심으로 AI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개 시·도가 선정

됐으며 전남도는 국비 1억2600만원을 확보해 강원도와 함께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는 공모 신청 기준액인 6300만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은 돌봄 수요는 있지만 제공기관 부족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돌봄·건강·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응급의료 취약성, 인구 감소, 서비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흡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4개 군의 섬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 중심의 일상 돌봄을 기반으로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서비스는 △AI 돌봄로봇을 활용한 24시간 생활 돌봄 △비대면 심리상담 △고령자 맞춤형 케어푸드 제공 등이다. 가정에 설치되는 AI 돌봄로봇은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는 말벗 기능과 함께 복약 알림, 안부 확인 등 일상 돌봄을 지원한다. 또 활동량과 대화 패턴 등을 분석해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비대면 심리상담을 연계한다. 케어푸드는 전남바이오팀원과 협력해 건강 상태를 고려한 고령자 맞춤형 식품 키트 형태로 제공된다. 또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돌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을 '섬 관리자'로 지정해 돌봄 서비스 안내와 이용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AI 반려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섬지역 주민의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격차 완화와 사회적 고립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섬 주민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마련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발굴해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뉴빌리지 통학로 개선 현장점검하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광주 광산구 우산동 뉴빌리지 통학로 개선 사업 준공을 앞두고 지난 13일 오전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공직자들이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우산동 뉴빌리지 사업은 2029년까지 국·시·비 등 총 196억원을 투입해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광산구는 북향문화돌봄시설 조성, 어린이 테마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노후주택 및 빈집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민주, 광주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경선 방식 확정

북·남구청장, 예비경선 후 국민참여경선...2인 결선투표 광역·기초의원 당원 100%...여성·청년신인 '가'번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북구청장과 남구청장 경선을 각각 8인·5인 예비경선으로 치른 뒤 본경선으로 후보를 압축하기로 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상무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방법 및 경선후보자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동구청장과 광산구청장 후보자 선출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해 1위 후보자가 50%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2인으로 압축해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후보자가 5인인 남구청장 후보자 선출은 당원경선으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을 실시해 2인으로 압축한 뒤 2인이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북구청장 후보자 선출은 예비경선으로 8인에서 5인으로 압축하고,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해 1위 후보자가 50%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최종 2인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은 당원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치른다. 당원경선 결과 확정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신인·청년신인·장애신인을 '가'번에 우선 추천하고, 기초의원 재선 이상이거나 의회의장 경력자의 경우 '가'번 추천을 제한한다. 경선 결과 해당 선거구에 여성신인·청년신인·장애신인이 없는 경우에는 45세 초과 남성 신인을 '가'번에 우선 추천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득표율 순으로 순번을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선출할 방침이다. 이산호 기자 goback@gwangnam.co.kr

장흥 물축제, 전남 첫 '에비 글로벌축제' 선정 문체부·관광공사 공모...연 2억5000만원 국비 지원

전남 대표 여름축제인 정남진장흥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에비 글로벌 축제'에 이름을 올리며 국제 관광축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 축제가 글로벌 축제 단계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글로벌·에비 글로벌 축제 지정 공모에서 정남진장흥물축제가 '에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 조기 달성을 위한 핵심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축제를 발굴하는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2026년 문화관광축제 45개 가운데 27개 축제가 참여했으며, 전문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글로벌 축제 3개와 에비 글로벌 축제 4개가 최종 선정됐다. 글로벌 축제로는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선정됐다. 에비 글로벌 축제에는 정남진장흥물축제를 비롯해 대구 치맥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가 포함됐다. 에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정남진장흥물축제

연 2억5000만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아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상품 연계, 국제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남진장흥물축제는 특히 전남 축제 가운데 처음으로 글로벌 축제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지역 축제의 국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이 축제는 전남도 지역축제 글로벌화 사업에서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며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 교류 기반을 다져왔다. 전남도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정남진장흥물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글로벌 관광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사이버 안전 패키지법' 6건 국회 통과

조인철, 대표 발의...정통방법·디지털포용법 등

국가 차원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이른바 '조인철표 사이버 안전 패키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복되는 대형 해킹 사고에 대응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 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통방법)' 5건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디지털포용법)' 1건 등 총 6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이버 보안을 국가 안보와 민생 보호



의 핵심 과제로 꼽아온 조 의원의 전문성과 끈질긴 입법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보보호 체계가 가진 허점을 꾸준히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해 왔다. 조 의원은 "통신사·플랫폼·금융을 막론하고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로는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제는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전면에 나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

광주경찰청 | 전남남도경찰청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특별법 안전보건공단 | GTCL |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